

産油國의 製品輸出과 日本의 消費地精製主義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I. 사우디의 제품수출의 波紋

사우디 아라비아의 페트로민이 작년 가을 일본등의 石油消費國에 石油製品의 수출을 타진해 왔다. 이것은 사우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同國內의 수출用 精油工場이 금년부터 來年에 걸쳐 잇달아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消費各國에 수출을 타진해 온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사우디는 최대의 産油國이며 日本의 原油供給國으로서도 최대이고, 제품 수입을 요청받게 되면 딱잘라 거절할 수 없는 면도 있다. 사우디는 原油供給과는 별문제로 하겠지만, 対応 여하에 따라서는 日本으로서도 石油政策 및 日本內의 石油關係法規의 보완 및 수정을 강요당할 것이다.

현재 日本石油政策의 축의 하나는 消費地精製主義이며, 石油業法에 따라 제품수입은 규제되고 있으며 나프타, 重油등 需給면에서 필요한 油種만 수입이 인정되고 있다. 사우디의 제품수출 타진과는 별개로 이미 製品輸入自由化가 문제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페트로민의 수출계획의 表面化로 이에 대한 論議는 백지화될 것도 예상된다.

그러나 中東産油國의 下流部門, 제품수출, 제품유통시장에의 참여의욕이 높아지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우디등 産油國의 제품

수출문제는 금년 후반의 이야기이지만, 中東産油國의 제품수출이 구체화되면 輸入自由化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國內石油市場의 安定 확립이 先決되어야 한다. 단지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미 대형 綜合商社측에서는 제품무역의 自由化를 둘러 싸고 소란스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通産省은 제품시장은 原油市場보다 供給, 價格이 모두 불안정하다 하여 제품수입을 供給計酬의 주축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또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自由化에 따른 長點도 모색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市場活性化라든지, 또는 『業界의 再編, 合理化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은가?』 등의 多角的인 검토도 필요하다. 消費地·國內精製主義를 원칙으로 하면서 関稅, 石油關稅法規의 개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日本이 당면하고 있는 對美·EC등과의 무역마찰이 石油業界에도 밀어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産油國의 「製品輸出」이라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은 石油의 需要침체로 原油의 販賣量이 감소하여 收益이 작아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製品도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선 정부가 현재 石油業法으로 규제하고 있는 제품수입을 自由化하는 것이냐의 与否이다. 만일 제품수입을 자유화하여 버리면 종래의 消費地精製主義(原油를 輸入하여 国内에서 精製하여 제품을 販賣하는 것)가 뿌리채 붕괴되고 말 것이다.

우선 精製設備의 면이 문제가 된다. 需要침체로 設備過剩이 되어 약 97만B/D의 설비를 廢棄시킨 石油業界이지만, 産油国으로부터 점차 石油製品이 들어오게 되면 또 한차례 精製設備를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럴 경우 무엇보다도 日本内の 價格体系, 流通經路의 堅持가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가 염려된다. 日本의 가격체계는 『輕質油에서 높게, 重質油에서 낮게』 책정되어 業界는 어떻게든 採算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産油国으로부터의 제품수출이 확대되어 가는 중에 이러한 가격체계가 유지가능할 것인가의 여부, 또한 流通經路도 産油国이 독자적으로 설치할 것이 예상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原油의 생산에서 製品판매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産油国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I. 輸出精油工場의 概要

이번에 사우디 아라비아가 日本을 필두로 歐美의 關係会社에 대하여 石油製品의 수입을 打診한 내용은 ① 全石油製品(휘발유에서 灯, 輕, B-A, B-B, B-C油까지)을 1984年 中半부터 수출할 것, ② 供給기간은 年間베이스로, ③ 引受量을 11월 15일(83년)까지 回答할 것 등으로 되어 있으며, 페트로민은 供給제품의 구성, 가격, 수출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1984년부터 새로이 대량의 石油製品을 市場連動價格으로 판매할 방침으로 있다고 페트로민은 밝혔는데, 페트로민의 販賣方針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페트로민의 판매량은 세계의 제품거래량에 비해 적기 때문에 페트로민 자신이 價格決定者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페트로민은 병커 重油 및 스파트의 製品販賣에 관해서는 公示價格을 설정할 것이지만, 長期契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

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個所의 新精油工場(總 82만 5천B/D)의 제품 중 페트로민이 40만B/D이상 판매하고, 나머지는 각각 合作会社의 파트너가 그 몫으로 처분할 것으로 되어 있다. 3 精油工場 중에서는 안부의 페트로민·모빌 精油工場(25만B/D)이 가장 빠른 84년 10월부터 稼動할 예정이고 朱베일의 페트로민·페트로라의 精油工場(32만 5천B/D)이 85년 초에 각각 가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

需要者는 페트로민이 原油GSP連動制가 아닌 市場價格連動制를 채택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精油工場의 가동이 가까와짐에 따라 페트로민은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올봄에는 계약체결을 끝낼 의향인 것 같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石油製品수출은 85년 初에는 輸出精油工場이 가동함에 따라 總量 80만B/D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중 페트로민 輕油의 수출은 앞서 記述한 바와 같이, 40만B/D 이상이고, 殘量은 모빌·셀등 合作企業의 몫으로 될 것이며, 그 모빌·셀의 제품이 日本에 수출되는 것도 예상될 수 있다.

III. 綜合商社와 石油会社의 対応

이러한 페트로민의 제의에 대하여 日本에서는 綜合商社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日本의 경우, 「消費地精製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한된 油種으로서 나프타, 重油의 일부가 輸入되고 있다.

이 때문에 綜合商社에서는 資源에너지庁과 의논, 다행히 페트로민이 數量, 價格, 油種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은 점도 있어서 商社측으로서도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意思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石油会社, 大型綜合商社 모두가 최대의 原油수출국이자 日本의 LPG 수입에 있어서도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우디와의 관계강화를 원하고 있는 외에도, 半自由化상태에 있는 나프타, 海外調達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B-C油 등 국제적인 가격경쟁에 처해 있는 제품에 관해서는 輸入源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가격안정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IV. 産油國의 精製能力展望

通産省의 「産油國의 下流部門에의 진출상황 및 先進國의 증질화대책조사」에 따른 主要産油國의 85년, 90년의 石油精製能力에 대한 전망은 <表-1>과 같다.

<表-1> 主要産油國의 石油精製能力 展望

(單位: 千b/d)

	1985年	1990年
이 란	530	530
이 라 크	348	348
쿠 웨 이 트	546	656
사우디아라비아	1,677	2,116
U A E	181	181
알 제 리	438	438
인 도 네 시 아	849	849
리 비 아	322	322
나 이 지 리 아	254	254
베 네 수 엘 라	1,323	1,323
O P E C 全 体	6,468	7,017
멕 시 코	2,060	2,060

精製能力은 320일 가동 기준이지만, 수출용만이 아니고 內需用精油工場의 精製能力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85년, 90년까지 精製能力의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이다. 85년에는 81년 대비 87만 2천 B/D가 증가하여 167만 7천 B/D의 精製能力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OPEC加盟國중 최대의 규모이다. 이와 같이 사우디를 포함한 페르시아 연안의 OPEC의 精製能力은 85년에 81년 대비 105만 6천 B/D, 90년에는 85년 대비 54만 9천 B/D의 能力增強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OPEC의 精製能力增強은 「페르시아中心」으로 추진될 것이다.

페르시아 이외에서는 能力擴大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이다. 85년의 能力은 81년 대비 35만 1천 B/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러한 인도네시아와 페르시아沿岸 産油國의 原油의 최대고객은 말할 것도 없이 日本이며, 이들 産油國이 精製能力증강에 따라 일제히 제품수출攻勢도 시작해올 것도 당연하다.

中東産油國의 輸出精油工場의 영향에 대해서는

剩餘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石油市場에서 근심과 예측이 분분하다. 쿠웨이트는 同國이 걸프로부터 취득한 로테르담精油工場에 역시 同國 소유의 29만톤짜리 탱커로 처음으로 原油와 나프타, 輕油를 수송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또 하나의 VLCC를 86년까지 石油製品 수송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쿠웨이트는 「보다 더 큰 船舶」에 의한 低코스트의 輸送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日本의 一部 精油會社, 綜合商社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쿠웨이트의 大型탱커에 의한 제품수송에 관해서는 확실히 輸送코스트의 절감이라는 利點은 있지만 輕質석유제품을 취급하는 大型탱커는 적재측면에서 제한된 物量밖에 실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概念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코스트節減은 도착된 石油製品을 대량으로 저장할 시설을 확보하는 데서 相殺되어 버릴 것이다.

실사 대량으로 저장가능한 시설을 보유한 買主가 있다 하여도 복잡한 업무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쿠웨이트의 이러한 戰略을 받아들여야 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쿠웨이트도 2척에 한정시킬 것 같다.

顧客이 될 가능성이 있는 精油會社에서는 가격에 관한 論議는 물론 있겠지만, 취급상의 어려움이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보고 있다. 貿易業者로서 본다면, 대단히 먼 곳으로부터 수송해오는 경우의 價格, 취급문제는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의 해결방법은 引渡時点에서의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는 것이다. 3~4週나 걸려 消費地에 도착하는 것은 그 사이 市場도 변화하기 때문에 거의 業者들은 조건이 비슷하지만 하다면 가까운 곳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選好할 것이다.

OPEC의 設備高度化能力은 앞으로 5년 이내에 2배이상으로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의 增設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88년까지 그 能力은 83년에 비해 87만 6천 6백 B/D가 증가한 150만 B/D에 달하여 對處理能力比率도 82년의 11.7%에서 17.6%로 증가할 것이다.

그 內訳은 接觸分解가 28만 4천 8백 B/D가 증가한 53만 7천 4백 B/D, 水素化分解가 42만 1천

4 백B/D가 증가한 59만B/D이고, 熱分解는 17만 4 백B/D가 증가하여 37만 5 천 5 백B/D가 될 것이다. 이밖에 EC諸国에서는 86년까지 14%가 증가한 300만B/D이상의 能力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增設理由로서는 ① 製品需要패턴의 輕質化, ② OPEC国内製品需要의 급증, ③ 重質原油의 利用拡大의 필요성, ④ OPEC原油價格의 방위수단 등이 열거될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需要저하의 영향이 重質原油생산에 따라 질게 나타나고 있으며, 輕質原油의 단순한 처리증가는 침체된 原油市場을 더욱 악화시켜 製品가격의 하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및 세계의 原油확인매장량의 86%가 重質, 高硫黃原油라는 점이 있다.

83년의 OPEC 製品수출은 180만B/D(79년 200만B/D)로 국제석유제품 무역의 19.6%(82년 21%), OPEC 總石油輸出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V. 日本「消費地精製主義」와의 關係

日本の 製品輸入에 대한 방침은 B-A油, B-C油는 關稅할당제도를 채용하고 있고, 나프타도 지나친 輸入依存을 피하고 中間溜分에 이르러서는 原則적으로 許可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내공급을 보충하는 것에 한정하는 사실상의 「鎖國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產油國의 精油工場 건설계획은 최근의 原油價인하에 따라 收入 감소와 財政難으로, 일부의 예를 들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新設精油工場, 인도네시아의 증설계획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보류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계획대로 下流部門에 참여해올 것인가의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產油國의 內需가 앞으로 어찌될 것인가도 수출물량의 예측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종래 產油國의 石油內需는 대단히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 實狀은 예상을 하회하고 있다.

消費地精製主義를 둘러싼 評價는 여러가지라 하여도, 현재의 石油業界가 消費地精製主義를 큰 기등으로 한 구조로 이루어진 이상, 이것을 一挙에

무너뜨리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뿐이며, 石油의 安定供給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도 기본적으로는 消費地精製主義는 堅持되어야 한다. 만일 國際化가 時間問題로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 하여도 부드럽게 吸收하는 형태로 진전되어야만 한다.

石油製品價格體系에의 영향이라는 문제가 또한 대두되고 있다. 產油國으로부터 製品の 強買를 당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大量으로 수입제품이 流入되는 것은 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輸入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가격도 국제가격에 連動되든지 또는 국내가격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것은 該當제품에 한하지 않고 石油製品 전체의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設備對應에 따른 コスト증가를 어떻게 흡수하여 더욱 收益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가격체계의 형성이 불가결해진다. 그리고 最終적으로는 需要者의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가격체계와 수요의 관계는 큰 문제로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現在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 또는 급격한 규제완화는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石油의 重要성과 石油海外依存度の 크기 등 日本이 처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① 安定供給의 확보, ② 石油産業에의 영향, ③ 國民經濟에 대한 영향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의 国内販売價格과 국제시장가격의 관계하에서는 素材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石油需要業界도 일정한 범위내까지는 싼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가격의 不安定性, 中間溜分에의 コスト轉嫁(B-A油, 工業用灯油)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利益단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점진적인 輸出入規制완화의 검토가 고려되고 있지만, 수입량의 완화를 어느 정도 폭으로 실시할 것인가, 輸入資格을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VI. 石油業界등의 意向

石油連盟과 日本經團連은 석유제품의 輸入自由化를 둘러싼 견해차이로 대립하고 있는데, 永山石油連盟會長은 『결론적으로 말해 수입자유화에 대해 石油連盟과 經團連이 對立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消費地精製主義에 대한 石油連盟의 기본적인 견해를 經團連측에 이해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石油連盟과 經團連의 대립은 經團連이 작년 7월의 常任이사회에서 결의한 「에너지코스트 절감에 대한 意見書」(관계기관에 대한 提言)의 原案중에 石油코스트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현행의 石油業法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石油제품의 수입을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文句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그 발단이 되고 있다.

經團連에는 石油連盟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文句가 포함된 것에 石油連盟이 강력히 항의했던 것이다. 또한 永山會長 자신도 「消費地精製主義」에 대한 石油連盟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經團連측을 설득하였다.

『消費地精製主義를 전적으로 100% 부인할 이유는 없으며, 石油業法은 石油業界의 현법이다. 그렇게 간단히 소비지경제주의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켜서는 곤란하다. 世界經濟가 변했다고는 하나, 石油業法主導의 業界運營등 지금까지의 추진방법을 변경해도 좋을 정도로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日本은 수요의 8할을 原油로 수입하고, 製品의 형태로는 1할 이상을 수입한다. 그러나 제품중심의 수입이 가능할 정도로까지 世界市場이 성숙된 것은 아니다. 原油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것은 消費地精製主義의 유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日本의 原油輸入비율은 아직 歐美諸國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리고 나프타에 이어 B-C油의 수입자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B-C油의 높은 가격때문에 基礎

素材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없어졌다』고 강조하고, 『自由化하게 되면 石油業界의 체질이 활성화될 것이다. 게다가 2차설비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B-C油는 수입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성 때문에 B-C油의 수입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그러나 石油產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정공급이며, 国益이라는 점에서 볼 때 消費地精製主義가 最善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제품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原油로 운송하는 편이 에너지코스트의 절감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B-C油가격은 이미 정책적 배려도 있고 해서 거의 국제가격과 동일한 수준에 있으며, 수요에 맞추어 생산하는 消費地精製主義의 패턴이 最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日本에너지經濟연구소의 生田이사장은『現行法下에서도 通産省에 의하여 수급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근거가 애매모호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改革을 위한 포인트로서 ①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元売會社の 設立, 合併에 관한 허가제를 도입할 것, ② 현재, 原則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石油제품의 수입(消費地精製主義)을 자유화하고, 그 대신 수입업자를 元売會社로 한정할 것 등을 提案하고 있다.

前述한 어느 견해를 따르든 할지라도 産油國의 제품수출은 消費地精製主義를 원칙으로 해 온 日本의 石油政策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된다. 그런 까닭에 業界의 대응을 떠나 通産省, 資源에너지庁이 어떠한 대책으로 임할 것인가가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 같다. *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크고 나라크다.